

# 생명운동과 죽음학: 웰빙<sup>Well-Being</sup>을 넘어 웰다잉<sup>Well-Dying</sup>의 시대로

최근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은 우리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은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에게 모방 자살이라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well-being) 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극한의 절망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자살열풍이란 야누스적 사회현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회원국 통계를 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4.3명(2008년 기준)으로 단연 1위이다(OECD Factbook 2009). 이는 자살자 수가 가장 적은 그리스의 2.8명에 비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20명 이상인 국가는 한국 다음으로 헝가리(21.5명)일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며 OECD 회원국 중 지난 10년간 자살자가 2배 이상 급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1998년 1,165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2008년 3,561명으로 늘어 10년간 3.5배 이상 폭증했다. 자살자 비율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24.3명꼴인데 비해 60대로 오면 47.2명, 70대는 72명, 그리고 80대는 무려 112.9명이나 된다. 자살은 전체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서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일 뿐만 아니라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보는 적이 있고, 10명 중 4명은 누구나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설문 결과는 자살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 자살열풍은 사회병리(社會病理) 현상이다

한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 보겠다고 온갖 건강식과 건강 전도사들의 흥행이



문영석 시몬  
캐나다 썬 마이클 대학교  
에서 신학석사  
토론토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취득. 현재 강남대학  
교 국제학부 교수 및 가톨릭  
신학과 사상학회 부회장

요란한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듯이 생명을 가볍게(?) 버리는 이들이 많다는 역설적 현실은 우리에게 사회병리적 통찰을 요구한다. 자살이 폭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역설적인 증표이다. 흔히 자살현상이 발생하면 “우울증”의 결과라는 단순처방이 따르는데 자살 현상의 이면에는 물질 만능주의, 가족의 해체, 폭력적인 인터넷 문화, 각종 스트레스, 왜곡된 출세주의, 학벌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 온갖 사회 병리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일등만이 인정받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일갈하는 어느 연예인의 말처럼 극심한 경쟁에서 밀려난 대부분의 낙오자들이 어찌 우울해 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증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고양시키는 각종 사회운동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자살열풍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구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 2,000억~3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살 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2010년까지 18명 선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오히려 24명 선으로 올라가 버렸다. 2010년 정부의 자살예방 사업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생명존중 정신건강 증진사업 7억 3,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단체 자살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 활동 지원 명목으로 6억 원이 편성돼 있을 뿐이다. 이는 일본의 100억 원 이상과 비교할 때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조 원을 넘어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13억 원 수준이란 것은 이 정부와 사회가 얼마만큼 사회 병리적 현상에 둔감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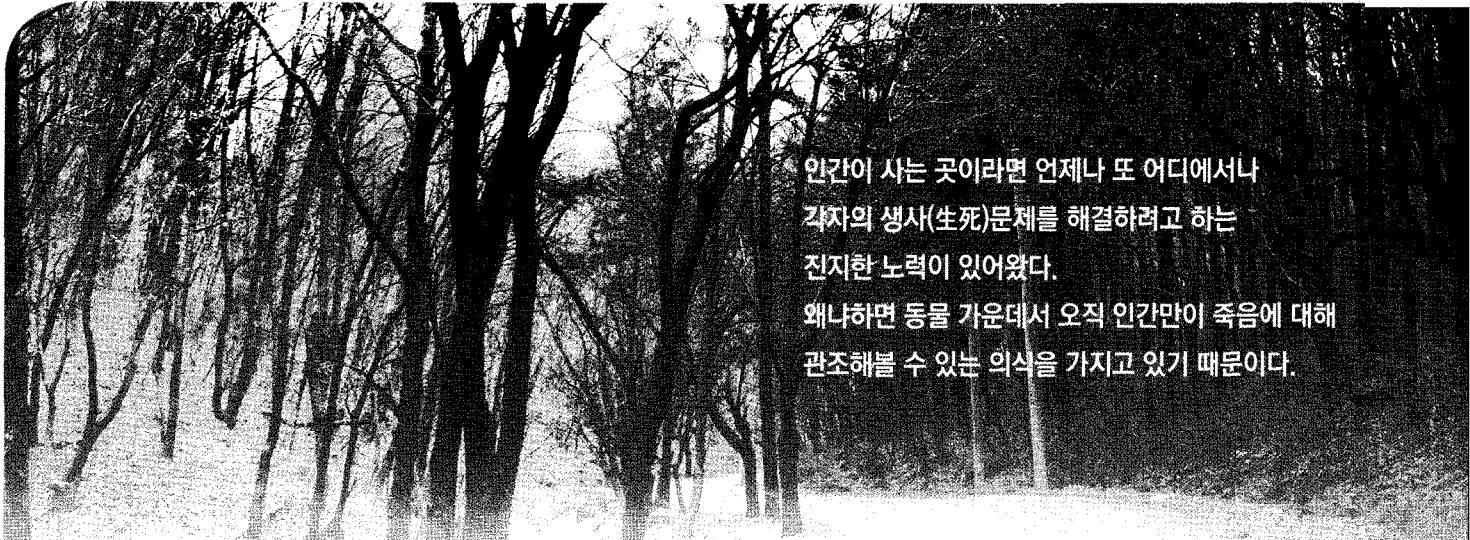
삶이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죽음은 위협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삶이 무의미해지면 차라리 죽음을 원하게 된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노인층의 자살도 결국 생활고, 신체적 질병 등과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자살의 원인은 이렇듯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할 수는 없다. 안

정된 직업 계층에서는 자살률이 낮은 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이나 서민층에서는 자살률이 현격하게 높은 것은 자살이 사회·경제적 이유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은 우울증 외에도 각종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중독·스트레스·빈곤·소외·분노·가혹력 등이 중첩되어있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하여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 병리적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반드시 죽기위해 시도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나 혹은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수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의 8배나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이 자살은 죽음뿐 아니라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간이 자행하는 가장 복잡한 행동중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대중매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다. 모방 자살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이런 모방 위험은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접근성이 높은 대중매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모방한 “베르테르 효과”와 인터넷 자살 사이트의 활성화 등 예전에 비해 다양해진 자살 방식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자살 사이트는 자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자살을 쉽게 결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개인적 자살 외에 집단 자살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요즘 “자살”은 “섹스”라는 단어와 함께 인터넷에서 가장 빈번히 검색되는 단어중 하나이기도 하다.

## II. 죽음 이해와 죽음 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선 일상의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는 외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설사 대면한다하여도 죽음이란 문제는 가장 불가해한 난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죽음을 아직 체험해 본적은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미답의 세계는 감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각자의 생사(生死)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동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  
관조해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하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를 우리에게 안겨 준다. 젊음과 미모유지 그리고 온갖 건강증진 요법들이 대중매체에 범람하면서 건강에 관한 거의 강박 증세를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는 노화나 죽음이란 주제는 되도록이면 은폐하거나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흘깃 흘깃 견눈질하면서 이를 잊기라도 하듯 더욱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욱 더 열광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짐짓 외면하고 이 불길한 “사건”을 늦추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과거에는 죽음은 공동체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임종은 가족과 친지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며 죽음이라는 단절이 가져다주는 극도의 절망과 슬픔도 공동체와 함께 치르는 장례의식을 통해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이라는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통과의례(rites of passage)<sup>1)</sup>로 희석시켰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임종은 점점 가정이 아닌 병동에서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배제시킨 공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장례식을 전담하는 상조회사에 의해 병원 영안실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준비되고 치러진다. 현대인에게 죽음이란 회피와 정복의 대상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하고 이로 인해 상실감을 겪게 되는 자연스러웠던 삶의 일환들이 젊은이들 주변에서 배제되면서 죽음이야말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일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될 불상사쯤으로 치부하여버리거나 텔

레비전에서 늘 보아왔듯이 죽음마저도 일종의 놀이로 전락되었다. 현대인들은 이로 인해 죽음의 실재에 대한 환상이나 이미지가 상호 충돌을 빚으면서 죽음에 대해 토의하는 것마저 꺼리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 경박한 문화는 우리 모두가 “늙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엄연한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 죽음 자체를 희화화(戲畵化)시켜 버린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유헤이 낭자한 시신(屍身)들을 가지고 노는 영화, 비디오, 컴퓨터게임 등이 횡행하면서 가상적 죽음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에게 죽음이란 신비한 것도 엄숙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각자의 생사(生死)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동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해 관조해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동물들은 노출된 위험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방어와 찰나적인 공포가 있을 뿐이다. 삶의 전체는 죽음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장엄한 순간인데도 죽음을 은폐하거나 역으로 희화화시키는 현대문화는 죽음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로 전락시켜 버렸다. 결국 현대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삶을 마감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이승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떠나가기도 한다. 과거와는 달리 임종환자들은 훨씬 더 쓸쓸하게, 차가운 의리기구들과 타인의 죽음에 무관심한 의료진들 사이에서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만을 연장하면서 비인간적인

1) T. William Hall, Richard B. Pilgrim, Ronald R. Cavanagh, *Religion: An Introduction*(San Francisco: Harper & Row, 1986), p. 60.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이 문제를 천착하고 호스피스 운동(hospice movement)이나 죽음 각성(death awareness) 운동들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인간적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의연하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한 개인의 의미 있는 생존과는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환자의 수명만을 연장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타율성과 수동성은 의미 있는 인간의 죽음을 소외시키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나 죽음교육은 역설적으로 인간생명의 귀중함을 재인식 시켜주며 질병에서 삶의로의 복귀 못지않게 죽음에 대한 적응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인간의 죽음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심장질환과 같은 갑작스런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음의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임종에 다다른다. 죽음의 문제는 단지 죽음을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이를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며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의 태도이다. 죽음에 대한 질문은 즉각적으로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인간적, 감정적 측면에 대한 의미론적 모색이자 교육이다. 죽음학을 공부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죽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죽음 문제는 삶으로부터 분리해 연구할 수 없으며 죽음에 대한 의식화는 보다 삶을 강렬하게 일깨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낙태와 자살 등 생명의 가치가 이토록 열악한 사회에서 죽음학이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학(Thanatology)<sup>2)</sup>은 희랍어의 “죽음, 사라짐”을

2) 문영석, “해의 죽음학(thanatology)의 동향과 전망”, 『종교연구』, 제39집 (2005. 여름), 293-313; Thanatology를 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죽음학”, “임종학” 혹은 인간의 죽음은 삶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생사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의미하는 thanatos (θάνατος)와 “연구 혹은 말함”을 의미하는 접미사logia (λογία)에서 유래하는 영어logy의 합성어이다. 죽음에 대해 철학, 종교,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정신의학, 간호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는 학문적이며 사회과학적 연구이다. 죽음학은 죽음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 예를 들면 죽음에 임박한 환자와 임종을 지키는 가족들의 필요와 고통을 완화시키는 연구뿐만 아니라 불치병과 완화요법, 각 문화권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장의 절차, 장례 예술, 호스피스, 자살, 사별로 인한 상실감과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죽음을 둘러싼 총체적 연구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죽음학은 의료진이 제공하는 말기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단순한 의료적 완화요법(palliative care)이나 성직자의 애도 상담 혹은 심리학자들의 심리요법과도 구분된다.

캐나다에서는 1968년부터 죽음학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학교의 정규교육 안에 끌어들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죽음학 전문 연구소를 세워 임종과 사별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를 수행해왔다. 창시자인 존 몰건(John Morgan)은 193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지만 1963년부터 캐나다 로올라 대학(Loyola College, 현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이후 캐나다에 귀화하였으며 2006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몰건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로 1966년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인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왔으며 본인의 소개로 2000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남대학교와 한국 노인복지학회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죽음-그 의미와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죽음학 국제학술 세미나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가졌다.

몰건이 죽음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가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양과목으로 선정된 철학과목 강의에서 초창기 온갖 열성을 다해 가르쳤으나 학생들의 미지근한 반응 때문에 실망하고 있던 차 죽음이라는 주제를 철학과 연결시켜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가 죽음학에 몰입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죽음교육은 1960년대 초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

원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학부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강의가 시작된 것은 1968년 캐나다 로올라 대학에서 물건에 의해 시작되었다. 물건은 그의 철학 강의를 죽음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 “죽음에 관한 우리의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며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삶을 맞이하는 방식에 반영 되더라”<sup>3)</sup>고 말하였다. 그는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철학과 연결시켜 강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가 컸음을 깨달았으며 죽음의 문제는 삶과 유리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고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자세 또한 진지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교육은 먼저 대학교에서 시작되었으나 후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도 파급되었다. 대학수준에서의 죽음교육은 사회학, 심리학, 종교학, 철학 분야 등에서 강의되어지고 있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죽음과 사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교과목들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학부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과정에서도 주로 노년학, 성인교육, 공중 보건학에 연계되어 석사과정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대학에서는 호스피스나 죽음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격증을 수여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죽음교육은 가족이나 친지와 사별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을 겪는 어린 유족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행해지는 자살 예방교육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탐욕스런 욕망을 상대화시켜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도와주는 죽음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삶이 존엄하다면 죽음의 존엄성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의 죽음에는 어딘가에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인간이 '산다'는 것은 육체적 삶 이외에 정신적인 삶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임종에 직면한 환자의 태도는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나온다. 임종자들

을 보살피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의 체험담에 따르면 “임종자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죽어간다”<sup>4)</sup>고 술회하고 있다. 인도출신의 철학자이며 저널리스트인 카마스는 “역사적 인물 51명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의 죽음은 용기 있고,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술회하였다.

### III. 생명문화운동과 죽음학

고대부터 종교나 철학의 주요관심사는 본질적으로 “죽음”에 관한 문제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거의 외면당하거나 주변으로 밀려났다. 죽음에 관한 해답체제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던 종교에서조차 오늘날 인기 있는 주제는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강조하는 현실 지향적인 변형신학과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행복, 건강, 성공 같은 단어들이다. 종교적 의미에서 보면 죽음이란 또 하나의 출생사건이며 한 인간이 겪어야 할 가장 큰 성장의 단계이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죽음에 관한 진지한 성찰을 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편견을 가진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삶은 단지 삶이고 죽음은 단지 죽음일 뿐이다. 그러나 삶의 존재 방식도 역시 죽음이다. 왜냐하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죽음을 시작하고 또한 죽음을 향해가기 때문에 죽음은 동시에 삶이다.”<sup>5)</sup> 생자필멸(生者必滅),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의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음은 이렇듯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죽음교육은 우리 모두가 죽음에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 임종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소중하게 간호하고 다루어야만 한다는 생명의 존엄성 교육을 포괄하고 있는 인간 교육이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절실하게 성찰할 때 비로소 참다운

3) John D. Morgan이 한국에서 강연한 (2000, 11, 28 송도병원) 원고 "Death, Dying and Bereavement of Canadian Elders", p. 8.

4) Marilynne Seguin, *A Gentle Death*(Toronto: Key Porter Books, 1994), p. 71.

5) Martin Heidegger,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rans. Ralph Manheim (New York :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131.



죽음학이 종교계, 노인복지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인성교육과 연계된다면  
 마치 백색이 흑색과 대비될 때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듯  
 죽음연구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어  
 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뿐만 아니라  
 “잘 죽자”도 덧붙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화해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고 삶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해지며 성숙한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문화 운동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면 생명교육과 죽음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성교육은 비록 피상적일지라도 어느 정도 공교육의 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죽음교육은 아직까지 전혀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의 열풍과 태아에 대한 무참한 살상이 횡행하는 우리사회는 죽음교육을 통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사회병리의 처방은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중심사회에서 탈락한 이들이 극도의 고립감과 누적된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이해함으로써 살아야 할 이유와 죽음에 대한 자기 통찰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임종환자들을 그동안 극진히 보살펴왔기 때문에 소위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장 잘 죽이는(?) 수녀들”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들에 의해 한국은 호스피스 운동이 세계에서

가장 초창기(1963년)에 도입된 나라이다. 그동안 일부 종교단체들과 민간인이 주도한 각당회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임종에 대한 전 방위적/간학제적 연구를 시도하는 죽음학은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단계에 있다. 2005년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 한국 죽음학회가 창설되었지만 최근 들어 활동이 정지된 상태이다. 호스피스 운동이 임상학문이라면 죽음학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초학문에 속한다. 호스피스 교육은 인간의 죽음에 관한 전 방위적 고찰을 주목적으로 하는 죽음학의 한 분야이기에 죽음학은 국내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는 호스피스 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죽음학의 소개와 연구의 활성화는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가톨릭교회의 생명문화 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죽음학이 종교계, 노인복지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인성교육과 연계된다면 마치 백색이 흑색과 대비될 때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듯 죽음연구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어 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뿐만 아니라 “잘 죽자”도 덧붙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